

정보가 흐르는 시냇물

사진 제공: AFP

북한

2011년 10월 조사보고서





조사보고 책임자: 벵자멩 이스마일 (Benjamin Ismail)
번역 조용희

2011년 초, 북한은 북한에 주재한 모든 대사관을 통해 외국 정부들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공격과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 년 전부터 외교관계가 최고조로 긴장되어 있던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요청은 매우 놀라운 것이고, 북한 내부상황과 북한 정부 전략에 관한 많은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식량사정의 악화에 따른 절망적인 제스처인가 아니면 김정일 이후의 권력 계승을 준비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인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유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의 규모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2011년 7월,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서울을 방문했다. 이는 북한에서의 언론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자단 대표가 서울에서 북한으로 방송을 전파하는 라디오 팀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NGO 단체들, 그리고 통일부의 공무원들을 만났다. 또한 탈북주민들과 북한 내에서 목숨을 걸고 북한 당국의 억압과 인도적 상황, 경제상황, 주민들의 일상 생활 등을 전달하는 북한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언론인들도 만났다. 그들의 증언과 분석을 통해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매체, 정치선전, 국가의 정보통제 부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변화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정보의 소통과 정권의 통제

강철환은 북한전략센터(NKSC)의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센터는 이 기관과 협력하는 북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비디오를 통해 북한에 관한 영상들을 수집한다. “비디오는 다른 매체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남한에 전파하여 남한 사람들이 북한 문제에 관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소지한 북한 사람들은 발각되면 그 즉시 처형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센터에서 수집된 영상들과 비디오들은 자유 아시아 방송 (Radio Free Asia),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그리고 다른 외국 미디어에도 사용된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이 센터에서는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수집된 정보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기자들의 안전을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함이다.

외국 언론들과 반체제 기자들

정보를 찾고 그것을 북한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현재 매우 위험한 모험이다. Internet Current TV 채널의 미국 기자 로라 링과 이은아의 체포가 이를 증명한다. 2009년 3월 17일, 중국 접경 지역의 국경선에서 북한군에 의해 두 미국 여기자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강제노동에 의한 재교육”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미국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이끈 외교협상 덕분에 2009년 8월 5일 자유를 되찾았다.

보수성향의 일간지 조선일보는 그들의 체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이라고 본다. 미국기자들이 국경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경우 추격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스파이들을 배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감시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외국기자들이 북한체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런 활동들의 공통 분모는 북한에 있는 북한기자들 또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중개인들과의 직접적인 협력이다.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탈북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사들은 중국국경 너머로까지 전화통화할 수 있는 통신원들의 네트워크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열린북한방송(ORNK), 자유조선방송(RFC), 자유북한방송(FNKR), 북한개혁방송 등에서는 세계의 소식뿐 아니라 북한의 사건들과 북한체제의 현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

2007년부터 일본에서는 일본기자 이시마루 지로와 북한기자 이준(가명)이 공동 발간하는 북한 잡지 “림진강(Rimjin-gang)”이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잡지는 두 달에 한번씩 발간되는데, 북한 기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얻은 정보들과 영상들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출판하고 배포한다.

이 기자들이 겪는 위험은 엄청나다. 북한당국은 이 기자들의 증언이 유출됨으로써 북한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김정일과 1962년부터 1979년까지 남한을 지배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비판하는 벽의 낙서가 평양에서 발견되었다. 남한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근 들어 북한당국은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억압정책 또한 강화했습니다. 대규모 소요를 대비하여 특수진압대를 만들고, 외국으로부터 최루탄과 마스크를 수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소요를 볼 수 없다면, 소요를 일으키는 북한인들은 쉽게 처형당할 수 있을 겁니다.”

2009년 화폐개혁에 따른 서민들의 저항은 50여 명이 처형되는 피의 유혈로 이어졌다. 그 이후에도 처형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되었고 이것은 체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전에는 중한 죄를 범한 사람들만 처형당했는데 이제는 일반 범법자들도 쉽게 처형될 수 있습니다. 인권상황의 심각한 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2009년 3월 17일 투옥되었던 CURRENT TV의 미국 두 여기자인 로라 링과 이은아는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가 2009년 8월 5일에 석방되었다. 사진 제공: AFP

그들에 의하면, 2007년 한 비디오 기자가 촬영하다가 기관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공개처형을 당했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보고서들은 원산에 있는 하나전기 회사 직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때 이후로 또 다른 공개처형의 사례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미디어에서도 자사의 한 기자가 북한 공안원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고 했다. 북한 공안원들이 그 기자가 서울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휴대폰

외국에서 활동하는 미디어들로서는 북한체제의 위협과 북한 내에서 행동하는 기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협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은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NKnet)의 김영한 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에는 대략 500,000-750,000대의 휴대전화기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이동통신전화망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내에서만 사용되는 네트워

크입니다. 우리는 그 네트워크에 관해 거의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불법이지만 중국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매우 불규칙해서 국경 너머 20 km까지만 가능할 겁니다. 북한당국으로서 이 이동통신망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2008년부터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정권이 강경화됐다고 한다.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휴대폰들은 엄격하게 사용이 금지되었고, 2011년 4월 북한당국은 중국측 접경도시인 단동에 가까운 신의주에 전화선 봉쇄조치를 내렸다. 김영한 연구원은 “전에는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은 벌금만 내고 말았는데, 지금은 휴대폰 소지 자체가 훨씬 더 중죄로 간주된다.”라고 말한다.

휴대전화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사람들과 통화하는 북한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통로가 될 수 있다. 많은 탈북주민들이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당국의 지속적인 위협 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동통신망에 대한 방해전파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발신되는 통화들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더욱이, 일부 서민들에게는 너무 비싼 통화료와 지리적인 장애가 휴대폰 사용의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암거래와 시장

결과적으로, 암거래는 정보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여러 특별단속기관들이 만들어졌다. 그 중의 몇몇은 김정은에 의해 창설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109단”이라는 그룹은 경찰 및 군인, 국가안전보위부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외국 기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임무를 가진 특별기관이다. 너무 쉽게 부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경수비대원들에 대한 감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특별단속기관원들이 국경을 감시할 때 현장에서 사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북한당국은 공적 또는 사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주민들도 감시한다. 국가 안전보위부원들이나 중국에 거점을 둔 기관원들은 술집이나 식당에서 북한인들을 감시하며, 일말의 “반사회주의적인” 행동도 단속한다. 체제를 비판하거나 중국 인터넷 사용과 같은 비난 받을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이 비교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어떤 단속반들은 일시적으로 활동하지만, 국경지역의 불법거래에 대한 기습단속들은 주민들에게 이런 행위들을 단념하게 만드는 실제적 힘을 발휘한다. 목숨에 대한 위협, 북한 내에서의 유배생활, 강제수용소, 감옥에 대한 공포로 많은 “암거래자들”이 활동을 포기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점점 더 활발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대략 300여 개의 시장들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교환 장소들은 외국의 언론매체들과 정보교환의 중요한 벡터를 이룬다. 남한의 한 관계자는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정권의 통제체제가 약해진 걸로 볼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유통 시스템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점점 더 이와 같은 시장에 의존한다. 이런 시장들은 서양의 시장개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정보교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으로부터 온 영화와 드라마들이 비밀리에 이곳에서 교환되고 복사되고 DVD나 CD 비디오통해 유통된다. 중국 접경지역과 47,000명의 북한주민들이 일하는 남한 접경지역의 개성공단 부근에서는 주민들이 불법거래에서 생긴 이런 물건들을 시장에서 교환한다.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 젊은이들이 이미 남한의 드라마들을 시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북한방송(ORN)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좋은 직장을 가진 여유 있는 계층들은 정치선전에 싫증이 나 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로운 다른 것들을 보고자 한다. 때때로 이런 시장에 단속반원들이 기습을 하지만 실은 그들조차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한다.”



시장이 정보를 소통시킨다. 부유층들은 이 시장에서 DVD나 CD, 단파 방송을 듣기 위한 라디오를 살 수 있다.

사진 제공: AFP



사진 제공: 중앙일보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흐름

NKIS(탈북지식인연대)의 김홍황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변화는 중산층과 지식층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2008년에 창설된 NKIS는 수백 명의 회원들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남쪽으로 탈출한 지식인들이다. 이 단체는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출간하고 배포하는데 2010년 10월부터 인터넷 라디오, Real NK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이 1999년 이후 상당히 증가했다. 과거에 북한주민들은 정보를 받는 것으로 만족했었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것에 관한 실질적인 욕구를 표현한다. 그들은 정치선전 방송이 주는 것이 아닌 좀 더 상세한 내용의 정보들을 얻고자 한다. “내부의 우리 협력자들은 우리에게 남한이나 미국의 최신 드라마나 영화, 게임들을 요구한다. CD, DVD 플레이어, 컴퓨터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서울에서 송신하는 라디오들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 듣고 그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김홍황은 설명한다.

이 단체는 국경 너머로 USB 키와 DVD도 발송한다. “이런 것들이 그곳으로 넘어간 후로는 누가 받게 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알기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중산층이나 고위층들일 것입니다.” USB 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 전달자나 수신인 모두 그것의 출처를 숙인다. 그것들의 출처나 내용이 북한이거나 중국인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덜 심각하다. 단순한 벌금이나 경고로 끝날 수도 있다.

김홍황은 북한주민들은 점점 더 외부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본다. 텔레비전을 가진 주민들이 잠금장치를 풀 수 있으면 외국 채널을 받아볼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남한 TV를 볼 수도 있다. 프린터만 제외한다면 전산장비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오늘날에는 북

한 전체에 약 이백만 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점점 더 주민들이 컴퓨터를 갖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그런 장비의 가격이 인상되어 컴퓨터 보급을 제한하고 있다.

NKIS(탈북지식인연대)는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적 콘텐츠, 즉 인권과 자유에 관한 콘텐츠들을 북한 지식인들과 반체제 인사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스텔스 USB 키”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USB키”와는 다른데, 북한 내의 반체제 인사들이나 학생, 엘리트 지식층을 겨냥한다. 이런 키들이 표적 대상 인사들한테까지 도달되는지, 복사되어 유포되는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그 내용들이 “그들로 하여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0년 2월부터 이 기관에서는 이런 류의 USB키 247개를 보냈다.

1992년 탈북한 강철환도 두 나라 사이에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CD, DVD, USB 키와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미디어와 프로그램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북한전략센터(NKSC)는 북한주민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 기관은 또한 북한 내부에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짠다. 이 단체는 국제 기독교 라디오 네트워크인 FAR EAST ASIA BROADCASTING (FEBC)의 도움으로 지난 이년 동안 북한으로 4,000 개가 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들을 발송할 수 있었다.

“책과 라디오 상자를 담은 기구(氣球)를 띄워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체는 반체제 라디오 방송사들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내에 아직도 부족한 라디오들을 기구에 실어 날려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



남한이나 중국 국경에서 기구(氣球)를 통해 라디오, 미국달러, DVD, 전단을 담아 날려 보낸 상자 사진 제공: AFP

● 고 본다. 주민들은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매우 궁금해 한다.

“남한 라디오 방송을 정기적으로 듣는 청취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남한으로 탈출하여 이제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그리고 아랍혁명, 남한사람들이 즐기는 명절에 관해서도 방송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외부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라고 열린북한방송(Open Radio North Korea)의 태궁하 국장은 말한다.

열 개가 넘는 단체들이 북한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지만 라디오 수신기를 보내는 곳은 많지 않다. NKSC는 장기적으로 십만 대의 라디오를 보낼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접경지역이 선호도가 높은 통로다. 라디오 수신기 발송의 성공률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디오 반입을 적발한 군인들이 때로는 그냥 눈감아 주기도 한다. 어떤 군인들은 그것을 압수하여 자기가 갖기도 한다”.

북한주민들 사이에 퍼진 남한 문화에 대한 높은 인기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주민들과 중국인들에게 시청각 프로그램 유통을 위한 중국-북한 간의 실질적 상업 행위를 조장한다. 이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받은 남한의 방송들을 녹화한 뒤 이를 CD, DVD 등에 복사하여 국경 지역에서 판다. “북한당국은 나라 안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남한 문화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강철환은 단언한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사들

2000년대 중반, 대북방송을 위한 여러 개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서울에 생겼다. 친북 성향 단체들의 압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Free North Korea Radio (FNKR), Open Radio for North Korea (ORNK), Radio Free Chosun은 탈북주민들이 운영한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들이고 2008년에 North Korea Reform Radio가 그 뒤를 따랐다.

2005년에는 평균 하루에 30분 정도였던 방송시간이 몇 년 사이에 두 세 시간으로 증가되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한 장소에서 단파로 송출되는데 AM이나 FM과는 달리 전파질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북한사람들이 중국 국경지역에서 밀매로 단파 라디오 수신기를 한대에 3 유로정도에 구입함에 따라, 라디오 청취를 막으려는 당국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인민보위부에 의해 압수된 라디오들은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라디오 부속품들을 빼내고 납땜을 해서 북한 공식방송만 들을 수 있게 주파수를 고정시킨다. 외국의 프로그램을 청취하려면 라디오 주파수에 고정된 선들을 빼야 한다. 그러려면 퓨즈를 분해해야 한다. 북한 돈으로 약 18,000원(약 4유로)의 비용이 필요한데, 보통 공무원 월급의 세 배에 해당한다.

리상이 실현되는 해 주체98(2009)년



조선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피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9년 12월, KCNA가 북한정권이 발행한 새 우표들을 보여준다. 우표의 그림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수십 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 사진 제공: AFP

미디어와 정치선전

구태의연하면서도 현대화된 선전

형식면에서는 많이 변화했지만 북한의 미디어는 자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든, 여전히 체제의 정치선전도구로 남아있다. 표현 방법이 부분적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정치선전의 작동형태는 거의 그대로이다. 2004년 말, 김정일에 관한 뉴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수식어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 지도자는 너무 많은 칭송을 받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라고 당시의 러시아 이타타스 (Itar-Tass) 통신원이 기술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미디어들은 평양을 비판하는 외국 기자들의 기사나 북한을 직접 방문한 기자들 또는 북한 내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명약관화한 조사들에 대해 반박하는 역할을 맡는다. 북한당국은 자국의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 권리가 없다는 기본에 입각하여, 미디어가 체

제나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쇄매체,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등에서는 북한 사회주의의 위대함, 작고한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과 현 지도자이면서 조선노동당 총서기인 김정일에 대한 선전을 멈추지 않는다. 언론은 판에 박힌 수사법으로 특히 남한을 겨냥하여 대중매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은 다루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2006년 3월, 조선중앙통신사(Korean Central News Agency)는 남한의 한 나라당 사무총장이 보수적인 일간지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희롱한 것을 폭로하며 남한에서 기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실을 고발했다. 2007년 5월에 이 통신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선언문을 보도했는데, “국가보안법”에 의해 평양을 지지하던 사진가이며 작가인 이시우가 남한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을 고발하며 남한에 ▶

● 기반을 둔 북한 지지세력들을 재통합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국가 보안법을 “사고와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난하는 보도가 수없이 많았다. 스스로의 모순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또 다른 기사에서 50년대부터 사용한 판에 박힌 듯 수사적 문장들을 쓰며 “사고의 자유는 진보적인 사고를 제거하고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위선적인 슬로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선전은 북한 내 김정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상화 작업도 계속했다. 국제 사회에서 김정일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북한당국은 외국인사들과 김정일의 모든 만남을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하도록 명령했다. 빌 클린턴과 함께 찍은 사진 하나가 매우 소중한 활용거리가 된다. 그런 이유로 2009년 북한의 대중매체들은 김정일이 카트만두 방문 기간 중 네팔기자협회로부터 “2009년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국제사회에 자랑했다.



노골적인 슬로건이 적힌 포스터들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반미 증오심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킨다. 포스터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 어디에 있던 결판을 낼 것이다» 라고 쓰여있다. 사진 제공: AFP

텔레비전과 라디오, 더 멀리 그리고 더 힘차게

현존하는 네 개의 텔레비전 채널 중에서 조선중앙 TV (Korean Central TV, KCTV)와 조선교육문화 TV (Korean Educational and Cultural Network)가 전국에 방송된다. 만수대 TV는 수도권에서만 시청이 가능하고, 네 번째 채널인 개성 TV는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40 여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북한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치선전을 겨냥한 기술적 수단이 많이 개발되었다. 북한 내에서의 화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공위성 커버 지역이 새로운 나라들로 확장되었다. 2010년 10월, 조선중앙TV는 인공위성을 태국의 Thaicom-5로 바꿨다. 북한 채널의 인공위성을 통한 전파가 아시아 및 중동, 유럽에서 가능해졌다. “외부의 정치선전”에 대한 봉쇄와 전파방해도 강화되었다.

2010년 북한당국은 국내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파 시스템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평양에만 몰려 있었던 시청각 전파 서비스의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개혁의 골자이다. 재편 계획은 텔레비전과 영화 스튜디오들을 여러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선전선동부와 인민위원회의 문화국의 지도로 추진된다. 정치선전 단편영화 제작도 계획되었다. 평소 준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시민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제작되는 이 영화들은 북한 내 영화관 안에서 상영된 후에 중앙 TV 채널에서 방영되어야 한다.

정치선전의 현대화는 북한의 주요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국(Korean Central Broadcasting Station)에도 해당된다. 이 방송국은 현재 국내방송 외에 인공위성을 통해 중앙 텔레비전과 북한의 국제 라디오 방송국인 “조선의 소리 (Voice of Korea)”와 연결돼 있다. “조선의 소리” 방송국은 9개 국어로 고주파나 단파 방송을 실시하는데 프로그램들은 김정일 찬양을 위한 방송이나 조선중앙 통신의 기사들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김정은의 후계 준비

북한에는 현재 12개의 신문과 20여 개의 정기간행물들이 있는데, 모두 평양에서 발간된다. 정치선전이 정기간행물이나 시청각 매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미래의 지도자로 간주되는 김정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특히 인쇄 매체에서 선전전략상의 섬세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2006년 몇몇 외국매체들이 김정일의 후계를 예고하는 초기 신호들을 감지한다. 북한중앙통신 기사들에서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점점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년 전부터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의 계승자로 간주되어지긴 하지만, 아직 이견이 분분하다. 바로 김정일 후계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지속시키는 사실이 북한 정치선전전략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이양을 위해 있었던 선전공세에 비해 김정은의 경우에는 선전기관이 비교적 침묵을 지키는 태도가 과거와는 대조적이다.

남한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를 김정은의 젊은 나이(28세)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부여되었던 “보호자로서 아버지”의 개념은 그의 일천한 경험과 낮은 지명도와 충들을 일으켰다. 2009년 이전에 북한을 떠났던 탈북주민들은 그들이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는 김정은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외국에 미래의 지도자 이미지를 유포하기에 앞서 북한은 북한주민들에게, 특히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부에 그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는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후계자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조심스런 점이 놀랍다. 그러나 여러 출처들에 의하면, 이에 대한 정치선전이 도시와 농촌에 말이나 글을 통해 점차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외국 관찰자들에



2010년 9월 28일 평양에서 있었던 제30회 노동당대의원대회 때 TV에 나타난 김정은의 첫 공식 모습 사진 제공: AFP

게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제작되었고, 그 중 한 곡이 2009년부터 농가와 공장에서 들리고, 2010년 월드컵 축구경기 전에 국가축구대표팀이 이 노래를 채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래 제목은 “발걸음”인데, 이 노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국만 따라 걸으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표현

하기 위해 김정일의 후광을 강조하는 북한의 전략을 나타낸다. 2009년 이후로 여러 매체들이 김정은의 초상화를 담은 배지와 포스터가 제작되는 사실을 언급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남한의 한 기사는 2010년 9월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다음날 장군으로 승진함으로써 그의 권력 승계는 자명해졌다고 말한다.

남한 군함에 대한 공격과 연평도 포격도 군사 엘리트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력을 쌓기 위한 술책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7월, 중국 외무부 사이트에 등재된,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김정은의 존재는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점진적으로 알리는 전략이라는 추측을 증명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체제의 지도자로 내정된 김정은은 특히 주요 공식행사 때 점점 더 자주 아버지 옆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 제공: AFP

인터넷 시대의 정치선전

선전의 현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인터넷이다. 아직은 평양의 몇몇 사이버카페나 외국인이 드나드는 호텔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북한 대중매체가 점점 더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음이 관찰된다. 당 중앙 위원회의 공식기구인 로동신문과 같은 신문들은 이제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 현대화된 KCNA 조선중앙통신의 사이트는 2010년부터 평양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는 신호다.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의 활동들은 체제의 정치선전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벡터로 인터넷 상에서 발전되었다. 정치선전은 유튜브, 트위터 같은 웹사이트에도 침투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끼리”라는 가명으로 회원가입을 했다. 몇 년 전부터 북한당국의 사이트로 알려진 www.uriminzokkiri.com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북한은 “인터넷의 블랙홀”이다. 많은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이 엄격하게 감시되는 인트라넷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김영환은 “현재까지 인터넷 전개 곡선은 항상 완만했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김일성 대학의 전자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정일의 연설문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디지털화된 사회주의 문서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된 대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정일은 “지식경제시대”에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칭찬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정권은 안전문제에 대한 염려로 “해커 부대”를 만들었다. 탈북지식인연대(North Korea Intellectuals Solidarity)의 창설자 겸 회장인 김홍황에 따르면, 인원선발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며, 정보통신에 소질을 보이는 북한의 젊은이들은 실력 연마를 위해 평양기술대학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2011년 6월, 한 탈북주민에 따르면, 평양 교외에 전산해킹을 담당하는 센터가 존재한다고 한다. 서울에 소재한 반복한 체제 라디오들이 피해를 봤거나, 여러 번에 걸쳐 남한의 여러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던 해킹 공격이 만경대 지방에 위치한 이 센터로부터 출발한 것 같다.



2011년 4월, 평양에 위치한 인민대학습당의 독서실.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학생과 시민들은 정치선전이 허가한 내용만 읽을 수 있다. 사진 제공: AFP

결론

거의 10년 전부터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에 의해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해마다 세계에서 꼴지 1, 2등의 자리를 차지한다. 언론은 이따금씩 일어나는 사건들만 기사화한다. 예를 들면 2007년 홍수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난 것이다. 가끔씩 “반사회주의” 정치선전을 추격하는 국경지역 감시원들의 “관용”이 나오기는 해도 언론 매체들은 당국의 완벽한 감시 하에 있다. 그 내용과 정보의 구조화, 스타일 면에서, 공식언론은 긍정적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에 대한 선전전략을 지속한다.

김정일의 권력이양과 2012년 김일성 탄생 백주년을 준비하는 평양의 야심으로 설명되는 체제의 탄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확연히 늘어나는 압거래를 저지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외국 라디오 방송사들이 보내는 정보의 물결이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멀티미디어 프로그램과 기재를 보내는 단체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노력을 배가할 수 있을 정도로 들리는 메아리들이 매우 고무적이다. 바로 이와 같은 북한주민 반응의 메아리들이 몇몇 전문가들로 하여금 북한의 변화를,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판에 계속 적대적이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북한당국이 아니라, 주민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지하경제의 발전과 중국 접경지역의 투과성(透過性)이 북한의 점진적 개방 전망을 위한 두 개의 결정적 요인이다.

2008년 북한에 대한 남한의 개방정책이 중단된 이후, 중국은 평양의 주요 경제파트너이며 제일 큰 공급원이 되었다. 몇몇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 의한 식량원조 조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규제조치들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지만, 중국 경제 안으로의 북한경제의 통합은 북한개방의 시초에서 중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다.

최근 들어 로동신문은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반면 두 나라간 경제관계의 법제화로 국경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고, 또한 현재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경 사이의 거래로 혜택을 보던 주민들이 희생되는 대신 평양의 엘리트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인권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결정하며, 북한당국의 경제자유화를 권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개방에 대한 결정이 북한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나 2011년 6월, AP통신은 통신사의 북한 접근을 제고할 목적으로 북한과 협의의 사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과의 의정서에 의해 평양 사무소를 열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AP통신은 KCNA 자료들의 독점배포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합의에도 불구하고, 평양 측이 투명성에 대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남한의 인권단체들의 활동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매체들을 지원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2009년 중국-북한 국경에서 실시된 Intermedia 여론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라디오들에 대한 청취율이 증가했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가져다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끝/

REPORTERS SANS FRONTIERES

POUR LA LIBERTE DE LA PRESSE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사무국

47 rue Vivienne, 75002 Paris - France - Tel. 33 1 44 83 84 84 - Fax. 33 1 45 23 11 51 - Web : www.rsf.org - E-mail : rsf@rsf.org - Ambroise Pierre – 아프리카과 : afrique@rsf.org - Benoît Hervieu – 미주과 : ameriques@rsf.org - Benjamin Ismaïl – 아시아과 : asie@rsf.org - Johann Bihl – 유럽과 : europe@rsf.org - Soazig Dollet – 중동과 : moyen-orient@rsf.org - Lucie Morillon – EU 및 발칸과 : rsf_eu@rsf.org - Olivier Basille – 인터넷과 : internet@rsf.org – 언론담당 : presse@rsf.org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제단체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언론자유 침해사례를 관찰하고 보고합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인들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치책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서와 권고사항의 형태로 언론이나 우편으로 배포합니다.

사무총장 : Jean-Francois Julliard | 출판부장 : Gilles Lordet